

AC 원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올해는 에이시(AC: After Corona) 원년(元年)이다. 이제 다시는 비시(BC: Before Corona)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고들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그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바뀌는 일상은 일상대로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면 될 테니까. 문제는 코로나19가 물고 오는 어두운 경제의 먹구름이다. 우리는 이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지각'이라고 불렀다. 한 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의 표정은 언제나 밝았고 생각은 늘 긍정적

이었다.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남편이 39세 되던 해, 갑자기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을 때도 그랬다. 남편은 절망에 빠졌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휠체어를 밟고 정원으로 나간 아내를 이렇게 말한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남편은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요?" "아니 여보. 그림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훗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된다. 경제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을 구출해 낸 것도 그다.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스벨트의 이야기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뉴욕 대부호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버드대학에서 역사와 정치학을 공부한 후 변호사가 된다. 1920년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패했고, 다시 변호사 업무로 돌아갔다. 이후 끊임없이 정치 재기를 노렸으나 39살의 나이에 반신불수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루스벨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타인과

소통하며 세상의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을 확고히 하게 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가을의 일이다. 뉴욕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곤두박질쳤다. 부동산 가격도 추락했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절반 이상 문을 닫았다. 공장들도 생산라인을 멈췄다. 1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채 거리로 내몰렸다. 최악의 경제 위기로 온 나라가 절망과 불안,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미국을 구한 루스벨트

이때 루스벨트는 말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과 용기를 갖자고 국민을 설득한다. 12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깃든 무거움과 불안함을 걷어 낸 그는 결국 '뉴딜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비로소 '정부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김형근의 책 '소통의 힘' 참조)

미국은 훌륭한 대통령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행운의 나라다. 1대 조지 워싱

턴, 3대 토머스 제퍼슨,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 그에 비하면 우리는 존경할 만한 대통령 한 명 찾아보기 힘든 불행한 나라라 하겠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배출한 대통령은 모두 12명이다. 이중 전직 대통령 11명은 모두 끝이 좋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독(毒)이 든 설패(聖杯)'와 다르지 않았다. 명예와 보상이 따르지만 실패와 파멸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자리였으므로.

짧은 임기의 윤보선과 '꼭두각시 대통령' 최규하는 논외로 하자. 이승만은 학생들의 유혈 시위 끝에 외국으로 망명해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박정희는 18년 장기 독재 끝에 부하에게 사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광주학살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노태우는 퇴임 후 재판에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영삼은 임기 말에 찾아온 IMF 외환위기로 불명예 퇴임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차남 김철원이 구속되는 등 끝이 그리 좋지 못했다.

노무현은 퇴임 후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명박 역시 퇴임 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박근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뒤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비교적 성공한 대통령으로 김대중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홍삼 트리'로 불려던 자식들 문제로 말년에 크게 체면을 구겼다.

이제 남은 이는 2022년 5월 9일이면 임기를 마치게 되는 현직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쯤이면 레임덕에 빠질 만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거꾸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있는가

사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어김없이 '전고후저' (前高後低) 현상을 보였다. 취임 초에는 높지만 임기 말에 되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다. 초기엔 50% 이상을 자랑했던 지지율이 말년엔 10% 이하로 곤두박질친 경우도 몇 번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K-방역'에 힘입은 바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지지율 또한 언제까지 요동칠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높은 지지율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대비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거만사위(倨安患危)라 했다. 평안(平安)할수록 위험(危險)이 닥칠 때를 생각해야 한다. 전전공공(戰戰兢兢)~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며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 (이 말은 본디 '얇은 얼음판을 밟듯 조심하라'는 뜻이었으나 요즘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인다.)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길은 산 너머 산, 첩첩산중(疊巒山中)이다. 남북 관계는 파란 직전이다. 북한 '최고준엄'의 여동생 김여정은 최근 문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미·중·일 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상황 역시 조만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로 인해 악화될 경제는 전혀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저 그런 정책을 모아 놓은 게 아닌, 정말로 획기적인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루스벨트가 그랬던 것처럼 문 대통령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역사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6·25전쟁 70주년 '영웅에 대한 경례'

국가보훈처, 서울공항서 행사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봉송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25일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고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경의를 담아 '영웅에게, Salute to the Heroes(영웅에 대해 경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전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식전에는 북한에서 발굴된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식전 행사는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최고 예우로 맞이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북한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운산,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된 유해(208개 상자)와 북미 1차 정상 회담 후 2018년에 미국으로 보내졌던 유해(55개 상자) 중 2차례의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147구가 국군 유해로 판정됐다.

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책무와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구현할 예정이라

고 설명했다.

행사는 배우 최수종과 국방홍보원 정동미 대위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민의례, 헌화·분향, 참전기장 수여, 유엔참전국 정상 메시지 상영, 평화의 패 수여, 무공훈장 서훈 및 감사메달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22개국의 유엔참전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 영상을 보내왔다.

6·25전쟁 당시 공적이 70년 만에 확인된 생존 참전용사 2명, 유족 12명 등 총 14명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이 가운데 매봉고지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공호영 하사를 비롯해 고 김명순 이등중사의 부인과 오봉택 이등상사의 아들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생존 참전유공자 8만 4000여명에게는 '감사메달(은화형)'을 전달됐다.

보훈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 2609명의 전사자를 마지막 한 분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담은 '122609 태극기' 배지를 참석자 모두가 패용해 국가수호 전사자에 대한 특별한 경의를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국 하와이공군기지에서 공군 장병들이 미국측으로부터 인수한 한국군 유해를 KC-330 공중급유기 좌석에 고정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 해제 유증상자는 음성 2회·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어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서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증상자는 현재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번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 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서의 격리해제 지침 등을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6. 2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6. 16(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자산매각공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소유재산은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 입찰 매각공고 합니다.

아 래

물건소재지	토지		건물		공고번호
	지번	지목	면적(㎡)	동수	
1. 남원시 동충동(남원면) 344-2	대지	1,286	17동, 주차실	4,982.00	공고 2020-11호
2. 남원시 광학동(남원면) 713번지(25필지)	학교 외	401.157	11개동	69,650.04	공고 2020-12호
3.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아산면) 347-5외 41필지	임야 외	165,029	21개동	29,761.33	공고 2020-13호
4. 광주시 광안구 대동동 684-9외 21필지	임야 외	58,216			공고 2020-14호
5. 광주시 남구 영파동 5253	임야	14,281			공고 2020-15호
6. 광주시 남구 장동동 517	임야	5,038			공고 2020-16호
7. 광주시 광안구 광동동 397-1	학교 외	23,657			공고 2020-17호
8.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외 34-2	전 외	24,105	31개동(24개동)	9,835.7	공고 2020-18호
9.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582, 581, 583	임야	104,933			공고 2020-19호

2. 입찰방법: 방문입찰
3. 입찰공고기간: 2020. 06. 23. ~ 2020. 07. 05
4. 입찰서 제출 마감: 2020. 07. 06. (월) 14:00
5. 개찰일시: 2020. 07. 06. 14:00
6. 개찰장소: (학)서남학원 청산사무소(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상기 세부 자세한 내용(지번, 면적 등)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amtw.co.kr>를 참조 바랍니다.
2020. 06. 25.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55039)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출지서법업)
Tel: 063) 288-8626, 8627 Fax: 063) 288-8628

산행안내

6월28일(일)
▲광주자연보전담사회 6월28일(일) 장수, 함양 백운산(1279m), 염주재
7월1일(수)
▲광주청룡산악회 7월1일(수) 경남 거

침술경력50년

금침을 한번만 맞으면 노후한 몸속 기관이 살아나 활기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고혈압, 당뇨, 정력강화, 중풍이해, 각종 암, 불치질환

단 한번의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010-8491-206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공고)

드림전(주)와 주식회사 이화(합)과 주식회사 도일전(합)이(이하 "이화합")은 각 2020년 06월 24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의 그 재산(합) 일부(채권공시일 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합"이 합병하고 "합"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상환 530,359 원 2항에 의거 "합"의 분할되는 재산부채등 "합"의 전가공시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합"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합)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승계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 하 ---
1. 분할 합병 대상: 정기공사(합) (0175030)
2. (합) 상 호: 드림전(합)의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용재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효곡로 304, 2층(신원동)
3. (합) 상 호: 주식회사 도일전
대표이사: 김자선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효곡로 304, 2층(신원동)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0년 24차 회기 정기총회

일시
2020. 6. 25.(목) 18:30

장소
스타워웨딩컨벤션 4층

☎ 062-372-1000
☎ 광주 서구 시청로 45

7월4일(토)
▲광주금강산악회 7월4일(토) 영동 민주시민 물한계곡, 봉선동롯데마트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6:20, 염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 후문 06:25 *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신회 7월4일(토) 비금도 선왕산 도초도 수곡축제,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5:5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 후문 06:25 *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8일(수)
▲광주청룡산악회 7월8일(수) 전남 여수 낭도 산상-둘레길 산행, 백운로타리아어벙크로얄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대우앞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